

향기가 나는 계수나무

♪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
♪♪♪
♪ 뚝대도 아니 달도 샷대도 없이 /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

- '반달' 동요 -

한번쯤 불러봤던 동요에 등장하는 계수나무는 사실 상상 속의 나무입니다.

실제 계수나무는 주로 가까운 숲이나 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잎은 낙엽이 떨어질 때면 노란 단풍이 물들고,

꽃이나 열매가 아닌 하트모양의 잎에서 솜사탕 같은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하트 모양의 잎과 달콤한 향이 나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잎을 선물해보세요 ♡



우리는 닮은 꽃, 생강나무와 산수유

생강나무와 산수유는 3~4월 이른 봄에 꽃을 피우며, 꽃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여 자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강나무



- 장소** 주로 산에서 볼 수 있음.
- 수피** 껍질이 없어 매끈함.
- 꽃** 꽃자루가 짧고 꽃잎이 6장.
- 잎** 3갈래로 갈라짐.
- 냄새** 잎과 줄기에서 생강 같은 향이 남.

산수유



- 장소** 산, 들,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음.
- 수피** 껍질이 여러 겹으로 거침.
- 꽃** 꽃자루가 길고 꽃잎이 4장.
- 잎** 윤기가 나는 타원형.
- 냄새** 특이한 냄새가 없음.

답은 듯 다른 봄꽃

	진달래	철쭉	산철쭉
꽃의 생김새			
개화	4월(분홍색)	5월(연분홍색)	4~5월(적자색)
꽃과 잎의 순서	꽃이 먼저 피	동시에 피	잎이 먼저 남
사는 장소	음지	양지	양지/음지
독성	없음	있음	있음
잎의 생김새	 잎 끝이 뾰족하며 긴 타원형. 뒷면에 털이 없음.	 달걀모양으로 끝이 둥글며 가장자리가 밋밋함	 긴 타원형으로 뒷면에 갈색 털이 있음